

참 고

신고내용 확인 추정 사례

사례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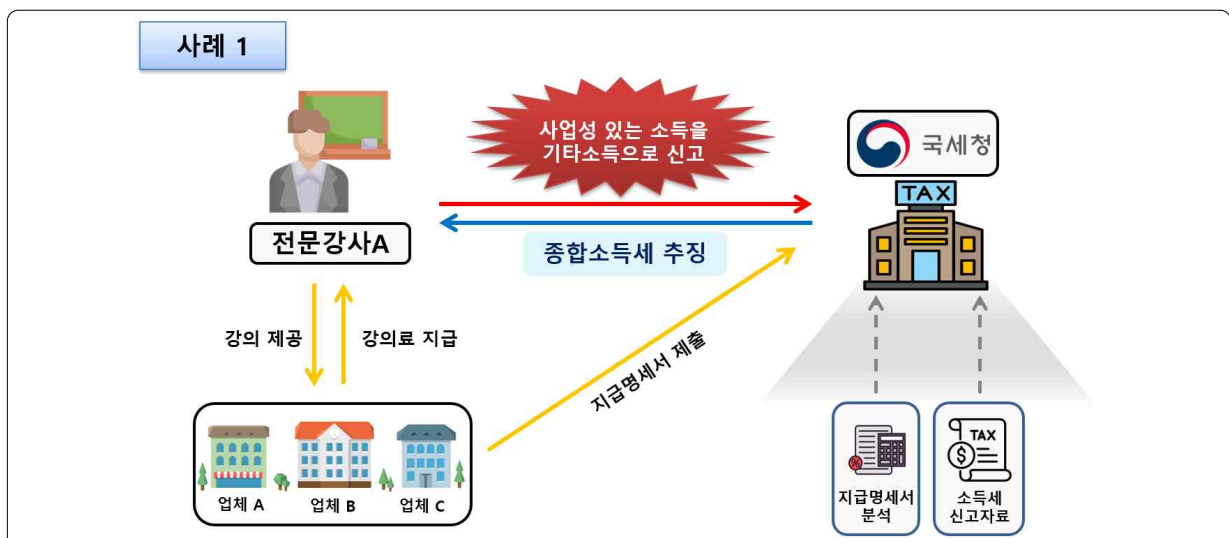
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

분석 내용

-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
 -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
-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·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,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

신고내용 확인 결과

-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·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 발송
 -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



사례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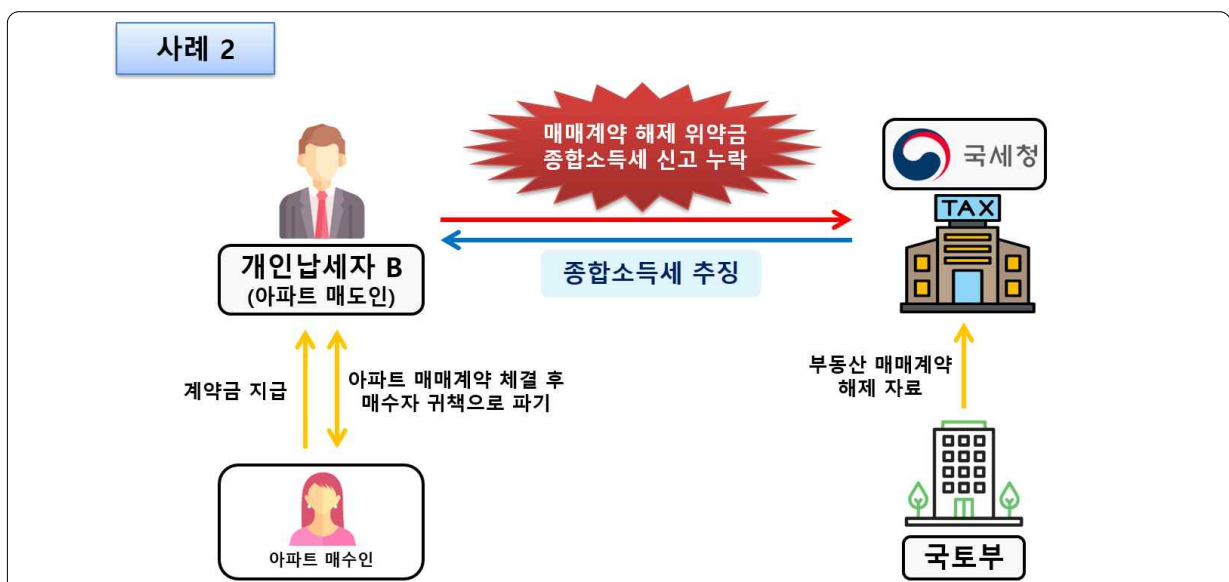
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을 신고 누락하여 추징한 사례

분석 내용

- 개인납세자 B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았으나,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만큼의 위약금 수입이 발생함
 -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약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음
-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·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,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 분석 결과 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

신고내용 확인 결과

- B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국토부의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비교하여 B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
 - B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시인하고,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



사례 3 직원 없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추징한 사례

분석 내용

- 도매업자 C는 고용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, 직원이 없음에도 여비교통비, 복리후생비 등을 필요경비에 과다하게 산입함
-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없는 반면 종업원 관련 필요경비 비율이 동종 업종 대비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어, 필요경비 허위 계상 혐의로 분석대상자 선정

신고내용 확인 결과

- C의 계정별 원장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대사한 결과 소모품비, 여비교통비,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임을 확인
- C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비용들을 경비에 포함시켜 소득을 축소 했음을 시인하고, 관련 경비를 제외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

